

2023 NEAR 국제포럼 &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3.12.8.(금)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매일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 도북아 공동번영”	
2	신문	경북일일신문	NEAR 국제포럼·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3	신문	경북도민일보	경북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교류·협력 방안 모색	
4	신문	경북신문	道, NEAR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5	신문	경안일보	“경제·인문 융합”... 경북도, 동북아 전략 협력 이끈다	
6	신문	세명일보	NEAR 국제포럼·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7	인터넷	영주방송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8	인터넷	국내매일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9	인터넷	대구광역신문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0	인터넷	다경뉴스	경상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1	인터넷	세계타임즈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2	인터넷	더글로벌타임즈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3	인터넷	경북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4	인터넷	굿경북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5	인터넷	코라이투데이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6	인터넷	파이낸셜경제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7	인터넷	뉴스씨치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8	인터넷	일요신문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19	인터넷	저널25방송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0	인터넷	뉴스포털1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1	인터넷	한국시사경제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2	인터넷	한국사회복지저널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3	인터넷	코리아타임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4	인터넷	서프라이즈뉴스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5	인터넷	포탈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6	인터넷	뉴스줌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7	인터넷	국민투데이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8	인터넷	정도일보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9	인터넷	신한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30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31	인터넷	검찰연합일보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32	인터넷	경북KCN뉴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33	통신사	프레뉴스통신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34	통신사	중부뉴스통신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경주서 열린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기념촬영.

경북도제공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 동북아 공동번영”

**경북도, 경주 NEAR 국제포럼
한·중·일·몽골·러 등 5개국서
38개 지방정부 200여명 참석**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NEAR)와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번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의 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

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과피,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

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임병진 사무총장은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며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달의 경제부지사는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NEAR 국제포럼·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
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



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

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교류·협력 방안 모색

도, 오늘까지 NEAR 국제포럼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열려
협력 분야 발굴 방안 의견 교환 등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 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

품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 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

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는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 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 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kws@hidomin.com

▶관련기사 9면

道,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5개국 광역지방정부 등 참석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6일부터 8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

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

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경제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NEAR 국제포럼이 경주에서 개최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라천년의 좋은 기운이 감도는 경주에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를 향한 거대 담론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특히, 경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함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인교 기자

“경제·인문 융합”... **경북도**, 동북아 전략 협력 이끈다

2023 NEAR 국제포럼·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 △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선 TCS 사무총장, 우영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최사를 밝혔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

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재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김규동 기자 ga7799@gaiboo.com

NEAR 국제포럼·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 개최

경북도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협력안 논의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 공동 번영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경북도가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지난 6~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8일 ▲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 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 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임병진 NEAR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며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과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



NEAR 국제포럼·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기념촬영) <경북도 제공>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특히, **경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돼 있으며, **경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황원식 기자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조규호 승인 2023.12.07 15:02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영주방송 조규호]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의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조규호 gng34@naver.com

저작권자 © 영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회 개최

기사입력 : 2023.12.07 12:31



2023 NEAR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경북도,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 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 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재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안오명 기자 cbc2047@naver.com]

<저작권자©국내매일 & www.news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3 NEAR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회 개최

기사입력 : 2023.12.07 17:32



2023 NEAR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경북도,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대구광역신문) 김선봉 기자 =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와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매일수룩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재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 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국=김선봉차장 기자 cbc2047@naver.com]

<저작권자©대구광역신문 & www.newsy.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상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경북도,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기사입력시간 : 2023/12/07 [17:45:00]

백두산 기자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 경상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백두산 기자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 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 경상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백두산 기자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 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 경상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백두산 기자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한윤석 ✉ / 기사작성 : 2023-12-07 08:44:41

-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 경북도,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 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연술 기자 승인 2023.12.07 15:02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더글로벌타임즈 연술 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연술 기자 tgtimes@naver.com

저작권자 © 더글로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뉴스팀 기자 / phfat 입력 : 2023년 12월 07일(목) 15:02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 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 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 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 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url : http://www.kb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00&idx=118876

Copyrights ©경북뉴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경북도,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한승민 기자 gng2500@naver.com

등록 2023.12.08 07:13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 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 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3/12/07 [15:29:00]

조혜연 기자



[코리아투데이뉴스]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 이달희 경북부지사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 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HOME > 뉴스투데이 > 생활문화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김영란 기자 ✉ / 기사작성 : 2023-12-07 15:15:32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

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경제 | 파이낸셜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fnewstv.com>]

HOME > 전국 > 대구·경북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이준호 기자 ✉ / 기사작성 : 2023-12-07 15:15:32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뉴스서치]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열려

온라인 기사 2023년12월07일 10시58분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경북도, 경제·인문 상호융합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NEAR 중심, 미래 함께 준비하자"

[일요신문]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이 6~8일 경북도와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와 공동으로 경주시 일원에서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과 분과위원회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개회식(7일),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8일)△현지 시찰 등으로 진행된다.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가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가지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특히, 경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해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 경제 등)가 구성돼 있으며, 경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이 기사 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3590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윤상호 대표기자 Ⓢ 승인 2023.12.07 15:02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저널25방송 윤상호 대표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윤상호 대표기자 ykc007@naver.com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23.12.07 15:02

대 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 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news@kcr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2023.12.07 15:02:01

더크게보기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 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권충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요즘 핫한농수산 트렌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블로그에서 살펴보기!

체계적인 한방치료

신침한의원

전화번호 02-404-0303

진료과목

교통사고 근골격계질환
통증질환 / 특수질환 / 추나요법
도침치료 / 공황장애 / 틱장애 등

프라임메디컬의원 소아부터 성인까지
우리가족 건강 주치의

대표번호 : 031. 8031. 7891~2 비만센터 : 031. 8031. 7894
발달센터 : 031. 8031. 7893 드수센터 : 031. 8031. 7895

전문의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진)

아산병원 : 오전 09:00~오후 09:00
토요일 : 오전 09:00~오후 05:00
경심시간 : 오후 01:00~오후 02:00
재택시간 : 오후 06:00~오후 06:30

세류비즈타워 (백도빌드, 스타벅스 사이) 4, 5, 6, 7층

인기뉴스

- 1 우다비, '마에스트라' 합류...이영애 어린 시절 연기한다! 오늘(9일) 첫 방송
- 2 '고려 거란 전쟁' 최수종, 친조 청하기 위해 거란 진중 도착...야율용서-소배압-한기, 극과 극 반응 '...
- 3 '마이 데몬' 송강, 이런 '악생' 처음이야! 감정의 혼란 속 '김유정 입덕 부정기' 돌입
- 4 '그림자 고백' 렌-박상남-홍승희, 조선 시대의 세 청춘에게 찾아온 특별한 첫사랑 이야기!
- 5 경기도 진로탐색 프로젝트 도전 청년 만난 김동연 "청년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도전 많이 ...
- 6 '밤에 피는 꽃' 김상중, 조선 최고 가문의 위엄 좌의정 '석지성'으로 돌아온다!
- 7 충남새마을회 라오스 봉사 현장 방문
- 8 경기도, 미래를 위해 전 세계를 만나다...올해를 빛낸 글로벌 행보
- 9 부산시, 동명대학교와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함께 조성한다!
- 10 부산시, '2023년 동절기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최신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겨울철 대설 대비 철저" 당부
2023-12-11 · 이정미 기자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한국사회복지저널 승인 2023.12.07 15:02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한국사회복지저널 한국사회복지저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 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사회복지저널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한장선 객원기자 ktn@koreatimenews.com

등록 2023.12.07 15:02:01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 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김주연 기자 승인 2023.12.07 12:06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서프라이즈뉴스]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

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매일수룩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 청년 산업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프라이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연 기자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등록 2023.12.07 15:02:01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포탈뉴스)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3/12/07 [15:02:00]

정진태기자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뉴스줌=정진태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 최지은 Ⓢ 승인 2023.12.07 15:02

대 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국민투데이 최지은]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 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최지은 younggwan@hanmail.net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김선자 sj2317@hanmail.net

등록 2023.12.07 15:02:01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정도일보)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 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3/12/07 [15:02:00]

고태우 대표기자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동북아차치단체연합(NEAR)와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

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3/12/07 [15:02:00]

김연실 기자 kspa@kspnews.com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케이에스피뉴스=김연실 기자 kspa@kspnews.com]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3/12/07 [15:02:00]

김민경 기자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검찰연합일보=김민경 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 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2023.12.07 16:59 입력



▲(사진=경북도)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경북knc뉴스채널]경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와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경북도)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사진=경북도)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사진=경북도)경제와 인문 상호융합을 통해 공동 번영하는 동북아 전략 협력 선도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특히, 경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하였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강광태기자 knc2600@naver.com

<저작권자 © Knc 뉴스채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HOME > 라이프 > 생활문화

경북도,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프레스뉴스  / 기사작성 : 2023-12-07 15:15:32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과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지속가능 발전 정책 및 자원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청년(한국의 청년정책과 청년 국제교류) △산업(전략경쟁시대 동북아 산업협력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하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

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pressna.com>]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차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

대전환 시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승인 2023.12.07 12:06



▲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중부뉴스통신] 경상북도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23 NEAR 국제포럼 및 제14회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를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 및 분과위원회에서는 '대전환 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국가관계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개국 38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는 12월 7일 개회식 국제포럼-전문가 세션 경제·인문교류분과위-특별강연 세션 지방정부 세션 12월 8일현지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섭 TCS 사무총장, 우역비 주부산 중국부총영사, 두드니크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와 개회식을 빛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및 동북아 정세는 협력과 경쟁, 대립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세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더욱 필요하다.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인 NEAR를 통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이해관계에 따른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문화·지리적으로 깊이 연결된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이 서로 힘을 합쳐 NEAR를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다.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동북아 정세 판단과 지방협력 심화방안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 환경파괴, 협력 그리고 몽골의 해법 동북아 지역 플레이어의 모델이 되는 중러 지방정부 협력 등 주제별로 5개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협력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고 미래 잠재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 특별강연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환경 청년 산업에 대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정부 세션을 별도 마련해 12개 지방정부에서 회원단체 소개, 정책 홍보 및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표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제포럼 및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경북 포항시와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이차전지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협력 활

동이 진행됐다.

한편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6개국 81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이후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하고 있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기자 desk@jungbunews.com

<저작권자 © 중부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